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redacted]	이름	백수림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한 학기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학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설도 괜찮고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은 하루에 4시간하는데 2시간씩 선생님이 다르고, 한 반에 인원은 14명 정도 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시안이고 특히 중국인이 매우 많습니다. ESL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어민과는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총 2세션을 하게 되는데 한 세션마다 발표 수업이 1번에서 2번 정도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에세이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수업방식은 반에서 2명에서 4명 정도로 그룹을 나눠서 토의하고, 한 세션에 3번에서 4번 정도 듣기와 리딩 테스트를 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랑가라 대학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친구도 사귀고 영어로 대화할 기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사무실 선생님들 또한 늘 친절하시고 학생들의 고민을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십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도착해서 한 달 정도는 날씨가 매우 좋았으나 그 뒤로는 비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9월부터 12월 까지는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많이 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일 오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날이 많습니다. 겨울을 한국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옷 보다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많이 쌀쌀합니다.

안전	안전문제는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해가 4시~5시 사이에 지기 때문에 너무 늦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고,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녁 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	밴쿠버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기 때문에 홈스테이 할 때 캐네디언 가족이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홈스테이 가족은 필리피노 가정이었습니다. 방은 아늑하고 가족들 모두 친절했습니다. 홈스테이 딸이 2명 있었는데 함께 자전거도 타고 가족과 파티도 같이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로 규칙이나 유의사항은 없었고 빨래만 제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을 위한 작은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거의 점심은 홈스테이 맘이 도시락을 싸줘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었고, 저녁은 가끔 친구들과 함께 외식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는 메뉴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정기권(Monthly pass)을 끊을 필요가 없었고, Faresaver(한 묶음에 10장이고 21달러)를 사서 다운타운이나 다른 곳으로 놀러 다닐 때 사용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돈으로 내도 되지만 버스의 경우는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기 때문에 Faresaver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0만원	아시아나항공 시애틀 경유 대한항공만 직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15만원	보험은 한국에서 LIG 유학생 보험을 들었습니다.
숙소	한 달에 750달러 (총 2750달러)	홈스테이 비용은 한 달에 750달러이고 8월과 12월에는 하루에 25달러씩 계산해서 지불했습니다.
식비	40만원	종종 친구들과 저녁에 외식
교통비	85달러	정기권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책값	0	책값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물로 합니다.

기타1	여행(시애틀, 록키산맥)-600달러	한 세션이 끝나고 방학이 10일정도 있는데 이 기간에 시애틀과 록키산맥 여행을 했습니다.
합계	약 580만원	개인적인 쇼핑은 제외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에 가기 전에 미리 영어회화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반 배정을 위한 시험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서 높은 반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텍스가 높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에서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이후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도 꼭 챙겨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 기간이 짧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영어도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영어공부를 하면서 해외인턴이나 해외로 나갈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외국친구들과 공부하고 생활한 것을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혼자서도 모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외국 친구들과 좀 더 쉽게 친해지고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able>
<tr><td> </td><td> </td></tr>
<tr><td>록키산맥</td><td>그룹 프리젠테이션</td></tr>
<tr><td> </td><td> </td></tr>
<tr><td>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한 파티</td><td>할로윈데이</td></tr>
<tr><td> </td><td> </td></tr>
<tr><td>일본인 친구들과 우리학교 교환학생들과 함께</td><td>순천향대 홍보</td></tr>
</table>